

## 상하이로 간 의사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규환\*

- I. 머리말
- II. 상하이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 1. 왜 상하이인가?
  - 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세브란스
- III.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대한적십자회 창설
- IV. 1920년대 상하이의 한국인 병원과 의료활동
- V. 맺음말

### I. 머리말

1908년 6월,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이 배출되었고, 그들 대부분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필순은 서간도와 북만주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박서양은 북간도에서, 신창희는 안동(安東), 상하이(上海), 내몽골 등에서, 주현측은 상하이 등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김희영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sup>1)</sup> 사실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은 제1회 졸업생만은 아니었다. 세브란스 초기 졸업생이 배출된 제1회(1908년)부터 제10회(1920년)까지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가는 시기였으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수렴되어 나간 시기기도 했다. 이 시기에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등의 졸업생은 총 91명이 배출되었다. 이 중 독립운동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김필순, 박서양, 신창희, 주현측(이상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연구부교수. 동아시아의학사 전공.

1)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3·1운동 시기를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8-2, (2015. 12), 52.

1회), 이태준(2회), 곽병규(3회), 정영준(5회), 김창세(6회), 신현창(8회), 배동석(2008년 명예졸업) 등 10명이었고, 그밖에도 포상은 받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김희영(1회), 김인국(3회), 나성호(4회), 김기정(5회), 김현국(6회), 김진성(6회), 안사영(7회), 박성호(8회), 박헌식(8회), 박주풍(9회), 이용설(9회), 이병천(9회) 등 12명이 있다. 이는 졸업생 91명 중 22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세브란스 초기 졸업생 4명 중 적어도 1명은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다는 뜻이다.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참여한 의학생 이외에 세브란스 출신 간호사와 교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세브란스인의 독립운동 참여 비율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sup> 또한 세브란스인들의 독립운동 지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몽골, 러시아, 미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었다.

그동안 세브란스 출신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인물 연구, 1회 졸업생의 독립운동, 3·1운동과 세브란스, 1910년대의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등이 주로 논의된 바 있다.<sup>3)</sup>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3·1운동의 결과물이자 독립운동의 중심점이 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와 세브란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1920년대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10여 명인데, 그 중 9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6명이 세브란스 출신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제4절 참고).<sup>4)</sup> 왜 유독 세브란스 출신들이 상하이의 독립운동 또는 임시정부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었던 것일까?

이 글은 한국 독립운동의 한 장이었던 중국 상하이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서, 상하이에

2) 2018년 6월 현재까지 세브란스 졸업생 중 독립운동 포상자는 배동석(2008년 명예졸업)을 포함하여 총18명이다. 세브란스 출신 의사 18명 이외에, 세브란스 출신 간호사 6명, 교직원 5명 등을 포함하면 세브란스인들 중 독립운동 포상을 받은 사람은 29명에 달한다.

3) 독립운동 인물 연구로는 박형우, 「대의 김필순」, 『의사학』 7-2, (1998); 박형우·홍정완, 「박서양의 의료활동과 독립운동」, 『의사학』 15-2, (2006. 12); 홍정완·박형우, 「주현즉(朱賢則)의 생애와 활동」, 『의사학』 17-1, (2008. 6);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申昌熙)의 생애와 활동」, 『연세의사학』 11-1, (2008. 6); 반병률, 「의사 이태준(1883-1921)의 독립운동과 몽골」,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6) 등이 있다. 반병률,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1-1, (2008. 6);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3·1운동 시기를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8-2, (2015. 12); 박형우, 「1910년대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6);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6).

4) 이밖에 의학생으로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임시정부에 참여한 인물로 경성의전 출신 유상규, 이의경과 세브란스의전 출신 서영완 등이 있다. 유상규에 대해서는 최규진·황상익·김수연, 「식민시대 지식인, 유상규(劉相奎)의 삶의 궤적」, 『의사학』 18-2, (2009. 12)을 참고.

체류했던 주현측(1회), 신창희(1회), 곽병규(3회), 정영준(5회), 김창세(6회), 신현창(8회) 등 6명의 의사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1920년 이전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던 세브란스 초기 졸업생들로 3·1운동 이전과 이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식민화 이후 의사들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상하이로 입성하였고, 임시정부와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브란스 초기 졸업생들의 독립운동이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임시정부 수립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상하이의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 1. 왜 상하이인가?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국권을 잃은 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간도, 서간도, 블라디보스톡 등으로 이주하였다. 1회 졸업생 김필순, 박서양, 신창희, 2회 졸업생 이태준, 3회 졸업생 곽병규 등의 초기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행선지도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5회 졸업생 이후로는 독립운동 행선지가 상하이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3·1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과 관계가 깊다. 상하이는 치외법권 지역인 조계가 설치되어 주권국가인 중국의 입장에서 굴욕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지만, 망명정부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국내외의 정치적 군사적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되기도 했다.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것도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주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필요했는데, 상하이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 장소이기도 했다.<sup>5)</sup>

1842년 8월, 굴욕적인 난징조약의 체결로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상하이 등 5개 항구에 조계(租界)를 설치하게 되었다. 조계는 단순히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교류의 장을 넘어서

---

5)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1910-1945』(한울아카데미, 2001);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2015).

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허용한 곳이었다. 1845년 상하이 현성(上海縣城) 이북의 영국인 거주지역에 영국조계(英國租界)가 처음 설치되었다. 중국정부는 중국인과 외국인들의 잡거를 허용하지 않는 화양별거(華洋別居)의 원칙을 내세웠고, 외국인들을 현성 내부가 아닌 현성 북쪽에 머물게 하였다. 1846년에는 홍키우(虹口)에 미국조계(美國租界)가 건설되었다. 1849년에는 상하이 현성과 영국조계 사이에 프랑스조계(Shanghai French Concession, 法租界)가 건립되었다. 1862년에는 영국조계와 미국조계가 합병되어 공공조계(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 公共租界)가 되었다. 그 뒤 조계는 점차 확대되었다. 공공조계는 장안쓰(靜安寺) 일대까지 확대되어 3만여 무(畝) 즉 90만평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조계는 쉬자후이(徐家匯)지역까지 확대되어 1만여 무 즉 30만평을 차지하였다.<sup>6)</sup>

말하자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상하이는 중국인 거주지(華界), 공공조계, 프랑스조계 등으로 삼분되어 있었고, 각 지역은 상하이 시정부, 공공조계 공부국(工部局), 프랑스 조계 공동국(公董局) 등이 중심이 되어 도시건설과 도시관리를 분담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은 한국인들은 프랑스조계와 공공조계에 살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상하이 현성에 머물렀다. 1911년 상하이의 전체 한국인 49명 중 프랑스조계에 거주하는 사람은 3명이었고, 공공조계 32명, 중국인 거주지 14명이었다. 1919년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1921년의 거주분포는 프랑스조계 458명, 공공조계 69명, 중국인거주지 60명이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조계 당국은 호구조사를 시작하고, 정치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임시정부에게 조계지역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sup>7)</sup>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았던 프랑스조계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1932년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기 전까지 프랑스조계는 한국인들이 가장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다.

## 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세브란스

임시정부 성립초기인 1920년대 임시정부에서 활약했던 한인 의사는 모두 10여 명인데, 그 중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물들은 세브란스 출신이 6명(주현측, 신창희, 광병규, 정영

6) 이영석 외, 『도시는 역사다』(서해문집, 2011), 123-125.

7)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1910-1945』, 61-62.

준, 김창세, 신현창), 시카고대 1명(이희경), 경성의전 1명(나창헌), 상하이 동제대학 1명(유진동) 등이다. 이들은 개업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임시정부 요원, 직속 대한적십자회 상의원 및 부속 간호원양성소 교수, 임시의정원 의원 등으로 활약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sup>8)</sup> 어떻게 해서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라는 두 조직과 연계되었던 것일까?

첫째,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의사라는 신분을 심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활동기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과 교류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들이 개원의로 활동하면서 자금모금이나 정보수집 등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의 본업을 유지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현즉, 신창희 등이 개원의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 교통국 요원 등으로 활약한 것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sup>9)</sup>

둘째, 세브란스인들은 종교, 학연, 지연, 혈연 등 인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세브란스인들은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인적 유대 관계가 깊었다. 우선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안창호가 설립한 홍사단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안창호가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냈고, 내무총장은 위생행정을 총괄하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출신들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김창세는 안창호의 동서이기도 했다.<sup>10)</sup> 안창호가 내무총장으로서 대한적십자회 창립에도 적극 관여했던 만큼 김창세는 안창호를 자문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한적십자회 창립 시기에 김창세가 감사 등을 역임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창세가 대한적십자회 간호부양성소 교수로 참여한 것도 안창호 등과 인적 친분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안창호는 세브란스병원의학 교 제1회 졸업생인 김필순과는 의형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안창호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

8) 이밖에 1920년대 임시정부에 관여한 의사출신 인물로 신영삼(경성의전), 신건식(항저우 의약전문학교), 임의탁(상하이 동제의학원), 이범교(대구제중원), 서재필(컬럼비아의과대학) 등이 있으나, 이들은 직업보다는 독립운동에 주력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박윤형·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근, 「일제 시기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 『의사학』 17-2, (2008. 12)을 참고.

9) 홍정완·박형우, 「주현즉(朱賢則)의 생애와 활동」;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申昌熙)의 생애와 활동」.

10)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의사학』 15-2, (2006. 12), 213.

주로 김필순이 제공한 김형제상회에 머물렀는데, 그곳은 세브란스병원 인근에 위치하여 세브란스 출신들과 교류가 빈번했다.<sup>11)</sup> 임시정부에서 안창호가 내무총장으로서 위생의료분야를 책임지고 있었던 만큼 김창세 이외의 세브란스 출신들이 안창호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김창세(단우번호 121), 주현측(단우번호 168), 신현창 등 세브란스 출신들은 홍사단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sup>12)</sup>

셋째,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하면서 약소민족들은 이때를 독립의 기회로 여겼다. 1918년 11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여운형, 장덕수, 서병호, 김구 등은 상하이에서 최초의 해외 망명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외교독립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sup>13)</sup> 여운형은 임시정부 초기에는 기독교 전도사로서 기독교계와 교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대한인거류민단의 단장과 시사책진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정영준과 신현창은 대한인거류민단 의사회 의원이자 시사책진회의 회원이었다. 김구 역시 신한청년당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로 나섰다. 임시정부 성립 이후 김구는 의정원 의원과 경무국장 등을 지냈고, 대한인거류민단 의사회 의원, 시사책진회 회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구의 동서인 신창희 역시 신한청년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신창희는 교통부 요원과 의정원 의원 등을 지냈다. 주현측 역시 신한청년당의 일원이었다.<sup>14)</sup>

넷째, 홍사단과 신한청년당 등의 연결 지점으로 대한적십자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사단 그룹의 리더인 안창호가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으로 있었고, 대한적십자회의 조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홍사단 그룹의 주요 인물인 안정근, 김창세, 김순애 등이 대한적십자회의 감사 등으로 활동했고, 신한청년당 그룹의 리더였던 여운형이 대한적십자회의 이사였다. 따라서 대한적십자회는 두 그룹이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지점이었다고 생각된다.

---

11) 박형우, 「대의 김필순」, 240.

12) 192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의료인 중 나현창(단우번호 178번), 이희경, 유진동 등도 안창호의 홍사단과 관계가 깊었다.

13) 윤경로, 「김규식의 신앙과 학문 그리고 항일민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2011. 3).

14) 홍정완·박형우, 「주현측의 생애와 활동」, 92.

더욱이 대한적십자회는 부속간호원양성소를 설립하는 등 의료활동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출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신현창이 대한적십자회 상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김창제가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로 참여하였으며, 정영준 역시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로 참여했다. 심지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광병규까지도 대한적십자회 활동에 합류할 수 있었다.

### III.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대한적십자회 창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1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반포하여 내무부가 경찰 및 위생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흥미롭게도 대한제국 임시정부는 내무부 산하의 경무국이 경찰 및 위생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는 다분히 식민지 위생행정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밖에는 군무부의 육군국과 해군국에서 육군 및 해군의 위생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임시관제는 일종의 상징적인 규정으로 피토허 국민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주도한 대한적십자회의 창립과 운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회의 활동은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대한적십자회는 발족한 지 한 달 만에 첫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1919년 8월 상하이에서 콜레라가 유행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회는 곧바로 임시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하이 거류 한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민단사무소 내에 임시 병원을 설치하고 콜레라 예방주사를 놓아 주었다. 요금은 50전씩 반기로 하고 하루 90명 정도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하루 30명 정도에 불과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sup>15)</sup>

둘째, 대한적십자회는 전시와 재난시에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독립전쟁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있었다. 임시정부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독립전쟁에 대비한 지휘체계 확립에 노력하였다. 만주와 러시아 인근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하던 독립군이 임시정

---

15)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서울신문사, 1977), 93.

부에 통할되면서 임시정부는 독립군의 부상병 구호를 위해서 적십자회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꼈다. 안창호, 이회경 등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 수립 3개월 후인 1919년 7월 13일, 임시정부 내무부 총장 안창호의 명의(내무부령 제62호)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이 인가되었다. 창설 당시 중심 인물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회경

부회장 김성겸

이사 여운형

査檢(監事) 안정근, 김창세, 김순애

常議員 이광수, 옥성빈, 장건상, 손정도, 김태연, 서병호, 정인파, 이화숙, 강태동, 고일청, 김한,

김병조, 김철, 원세훈, 현순, 김보연, 김홍서, 오의선, 이춘숙, 이기룡

이상과 같이 임원 구성을 마친 후, 8월에는 안창호 등 78명 명의로 「대한민국 적십자회 선언」과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적십자회 선언

아 적십자회는 대한민국적십자회임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발기인 안창호씨 이하 78명의 명의로 발표하는 바이다.

결의문

일, 일본적십자사에 대하여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고 연금의 반환을 요구할 것

이, 국제연맹에 향하여 일본적십자사의 무도무의한 죄악을 성토히는 동시에 우리의 정의적 태도와 독립적 자격을 완전히 표시함으로써 적십자연맹에 가입할 것

삼, 신성한 독립전쟁에 대하여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동포를 구제함은 우리 적십자회의 제일의 요무요 급선무라. 고로 자유정신을 가지고 동포의 참상을 슬퍼하는 우리 민족이여! 성심 총력하여 본회의 목적을 달할지어다.

대한민국 원년 8월<sup>16)</sup>

1905년 대한제국이 대한적십자사를 창설하였으나 1909년 7월 적십자사 합동이라는 미

---

16)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 78.



명하에 대한적십자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대한적십자회는 일본적십자사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곧이어 대한적십자회는 전문 35조로 구성된 대한적십자회 회칙(1919년 8월)을 공포하였는데, 제4조는 “전쟁 및 기타 재난시에 부상자 및 병자를 구휼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sup>17)</sup>



사진1. 대한적십자회 간호원양성소 제1기 졸업사진(1920). 9명의 여성 간호원(왼쪽부터 김연실, 김원경, 이경신, 이화숙, 오남희, 김순애, 이봉순, 김현숙, 이매리)과 가운데줄 왼쪽부터 정영준, 곽병규, 김창세 등 교수진이 보인다.<sup>18)</sup>

1919년 9월 19일 밤9시,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회(회장 이희경)가 프랑스조계 장안리(長安里) 민단사무소(民團事務所)에서 열렸다. 명예회장에 서재필, 고문에 이승만, 이동휘, 안창호, 문창범 등이 추대되었다. 1920년 1월 31일, 프랑스조계 내 대한적십자회 총사무소에 적십자간호원양성소(赤十字看護員養成所)를 설치하고 개학식을 열었다. 개학식에 참석

17)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 79.

18)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 93-94에서는 졸업생 오남희가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남희는 『신한민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해에 있는 대한인 적십자회」, 『신한민보』(1920. 4. 16.), 1면.

했던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는 “이번에 개설된 간호원학교가 많은 간호원을 양성하여 독립투쟁시에 유감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여,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의의와 사명을 강조했다.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수업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매주 18시간 수업을 받도록 했다. 수업내용은 간호학 과목은 물론 일반 의학과목도 수강하도록 했다. 전시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간호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1기 입학생은 남자 3명, 여자 10명 등 총 13명이었다. 이들의 졸업사진에는 9명의 여성 간호원(김연실, 김원경, 이경신, 이화숙, 오남희, 김순애, 이봉순, 김현숙, 이매리)만이 보인다.<sup>19)</sup>

교수진은 곽병규, 정영준, 김창세 등 3명이었다.<sup>20)</sup> 이들은 모두 세브란스 출신으로 곽병규가 1913년, 정영준이 1915년, 김창세가 1916년 졸업생이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상하이에 온 것은 김창세였다. 그는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졸업 후 1918-1920년까지 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상하이에 있는 중국홍십자회총의원(中國紅十字會總醫院)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창세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 대한적십자회 창립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설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정영준과 곽병규가 어떻게 해서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진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sup>21)</sup> 아마도 그들은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 후배인 김창세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것이고, 적십자간호원양성소가 출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합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간호원양성소 학생들의 간호 실습은 김창세의 주선으로 상하이 홍십자병원을 비롯한 시내 병원에 의뢰하였다. 간호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동포들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적십자간호원양성소는 제1기생만을 배출한 이후 더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다. 임시정부임시의정원 등에 합류했던 정영준, 곽병규 등이 만주와 시베리아 등으로 복귀하였고, 김창세도 미국유학을 위해 상하이를 떠나는 등 교수진이 해

19) 「상해에 있는 대한인 적십자회」, 『신한민보』(1920. 4. 16.), 1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 93-94.

20) 「赤十字看護員養成所의 개학」, 『獨立新聞』(1920. 2. 7.);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 94에서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진 중 김성근(金聲根, 1892-1947)을 의사로 설명하고 있으나, 김성근은 폭탄전문가로 의사는 아니었다. 김성근은 강원도 출신으로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와서 임시 의정원 강원도 대표 등을 지냈다.

21)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134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정영준의 출신학교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브란스學籍簿』와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등에서 정영준은 세브란스연합의학교 1915년 졸업생으로 확인된다.

체되었다. 또한 학생 선발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무엇보다 대한적십자회가 적십자간호원 양성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대신 대한적십자회는 구제회를 조직하여 의연금과 구호물품 등을 기증받아 국내외의 동포들에게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 IV. 1920년대 상하이의 한국인 병원과 의료활동

192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한 의사들은 10여명이었다. 이들 중에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은 9명인데, 세브란스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시카고의대 1명, 경성의전 1명, 상하이 동제대학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임시정부 혹은 임시의정원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프랑스조계 내에 병원을 개설하고 개업의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표1. 192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한 의사들<sup>22)</sup>

	성명	출신학교	병원명	주요 활동	공훈
1	김창세	세브란스연합의학교	中國紅十字會總醫院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건국포장(2001)
2	곽병규	세브란스연합의학교	赤十字看護員養成所	적십자간호원양성소	대통령표창(2011)
3	정영준	세브란스연합의학교	高麗醫院	적십자간호원양성소	애족장(2014)
4	주현측	세브란스병원의학교	式弑醫院	임정 교통국 재무부 참사	애족장(1990)
5	신현창	세브란스연합의전	式弑醫院, 海春醫院	임정 의정원 의원	애국장(1990)
6	신창희	세브란스병원의학교	대한적십자회 상의원	임정 교통부 요원	애족장(2008)
7	이희경	시카고의대	대한적십자회 회장	임정 의정원 의원	독립장(1968)
8	나창현	경성의전	世雄醫院	임정 의정원 의원	독립장(1963)
9	유진동	상하이 동제의학원	寶隆醫院	임정 의정원 의원	애족장(2007)

김창세(金昌世, 1893-1934)는 한국재림교회 출신으로 1916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졸업 이후, 순안 교회병원에 근무하다가 1918년부터 상하이 중국홍십자회총의원(中國紅十字會總醫院)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안창호 등을

22)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148 자료를 일부 활용한 것임.

도왔고, 대한적십자회 창설과 부설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교수로 활동했다. 김창세는 1920년 도미하여 필라델피아 제퍼슨 의대와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수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25년 10월부터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세균학 및 위생학교실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나 2년만에 사직하고 1927년 11월, 상하이 중화위생교육회(中華衛生教育會) 성시위생부(城市衛生部) 주임으로 활동했다. 1928년 1월, 김창세는 존 그랜트, 황쯔팡(黃子方), 후홍지(胡鴻基) 등 중국의 진보적인 위생행정가들의 잡지인 『위생월간』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1928년 김창세는 프랑스조계 공동국(公董局) 위생과(衛生課)에 근무하였으며, 상당히 높은 수입을 보장받고 있었다.<sup>23)</sup> 그는 이곳에 재직하는 동안 The China Medical Journal에 상하이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sup>24)</sup> 1929년 8월 1일, 김창세는 자신의 집에 서호폐병요양원 상하이진료소(西湖肺病療養院 上海診所)를 개설했으며, 1930년 1월, 학회 발표차 도미한 후 뉴욕 맨하튼 보이스카우트 보건과장 등을 지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1934년 4월, 만41세의 나이로 자살하였다.<sup>25)</sup>

곽병규(郭柄奎, 1892-1965)는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졸업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곽병규는 1919년 2월부터 1921년 8월까지 블라디보스톡 일본총영사관의 감시대상이었다.<sup>26)</sup> 3·1운동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결집됨에 따라 곽병규 역시 상하이로 잠입하였다. 적십자간호원양성소가 출범함에 따라 곽병규는 교수진으로 참여하였다가, 얼마 후 블라디보스톡에서 되돌아가 러시아 조선인 기독교청년회 회장, 시베리아 조선인교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sup>27)</sup>

정영준(鄭永俊, 1877-1924)은 평안북도 철산 출신으로 1915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졸업 후 베이징과 평톈 등지에서 천화의원(天和醫院) 등을 운영하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이주하였다. 1919년 그는 상하이에서 샤피루(霞飛路) 220호에서 고려의원을 개

23) 「上海不逞鮮人狀況(1928. 7)」,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53.

24) C. S. Kim, "A Brief Survey of the Public Health Activities in Shanghai", *The China Medical Journal* 42-7 (July 1928), pp.162-180.

25) 신규환, 「식민지 지식인의 초상: 김창세와 상하이 코스모폴리탄의 길」, 『문화와역사』 23, (2012. 5).

26) 1919-1921년까지 일본외무성이 작성한 곽병규에 관한 10여건의 감시보고서가 있다. 菊池義郎(블라디보스톡 總領事),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7), 不逞鮮人 學生의 書面에 관한 건, 機密 제28호」(1919. 2. 21.),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 13건.

27)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참고. <http://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원하였고, 대한인거류민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정영준은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경기도 의원을 지냈으며,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회원 등으로 활동했다. 1921년 5월,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고에 따르면, 정영준은 이동녕, 이시영 계파의 일원으로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일파로 분석되었다.<sup>28)</sup> 1922년 8월, 만주에 항일무장단체가 연합하여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가 설립되자, 정영준은 만주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간도로 이주했다. 곧이어 그는 북간도 흥경현(興京縣)에서 활동하던 김명봉(金鳴鳳, 1893-1924) 중대(대한통의부 제5중대)에 편입되었고, 흥경현 지방업무를 관리하는 지방총관으로서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sup>29)</sup>

주현측(朱賢則, 1882-1942)은 1908년 세브란스병원의학교 1회 졸업 이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교통국 재무부 참사로 활동했다. 1921년부터는 신현창과 함께 상하이 프랑스로에서 삼일의원(式弑醫院)을 개업했다.<sup>30)</sup> 삼일의원은 한국인들의 전용 교회당이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던 삼일당(式弑堂)이 인접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접근성이 좋아 한국인 진료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1922년, 주현측은 텐진과 산둥 등지에서 흥사단활동과 선교활동을 벌였다. 1925년, 주현측은 귀국하여 선천에서 동제의원을 개원했다. 그는 1937년, 1940년, 1942년 등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조달에 관여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1942년 3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sup>31)</sup>

28)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 3: 高警 제13028호, 國外情報: 僭稱上海假政府 幹部의 黨派別」(1921. 5. 10.),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9) 船津辰一郎(奉天總領事), 「機密公 第78號-機密受 第83號: 興京縣ニ於ケル不逞鮮人情況ニ關スル件」(1924. 3. 20.), 『日本外務省記錄』; 岩村成允(鐵嶺領事), 「機密 第30號-機密受 第32號: 興京ニ於ケル不逞鮮人情況ニ關スル件」(1924. 3. 15.),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0) 1921년 3월 26일자 『독립신문』에는 式弑醫院의 주소지가 上海 法租界 西新橋 三一里 8號라고 되어 있다. 式弑醫院은 에드워드가(Rue du Edward)와 팔리카오가(Rue du Palikao)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1910년대에 에드워드가는 서신교(西新橋, 현재의 延安東路)로 개칭되었고, 팔리카오가(八里橋街)는 팔선교가(八仙橋街, 현재의 雲南南路)로 바뀌었으며, 삼일의원은 두 거리가 교차되는 지점(현 라오산커잔老陝客棧)에 있었다. 팔리교(八里橋)는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영불연합군의 베이징 진공시 우선 점령한 곳이었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승전을 기념하여 팔리교가(八里橋街)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 중국인들로서는 치욕적인 이름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팔리교가라는 이름 대신에 팔선교가(八仙橋街)라고 불렀다. 김광재, 「상해 국민대표대회 개최지 三一堂 위치고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를 참고.

신창희(申昌熙, 1877-1926)는 1908년 세브란스병원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 후 세브란스간호부양성소 교수로 활동하다가 1910년 의주 구세병원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손아래 동서인 김구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신창희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일원으로서 독립군의 군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편익과 연결을 돕는 일에 가세하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1917년 신창희는 의주 건너편인 안동으로 이주하여 평산의원(平山醫院)을 개원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교통부 안동지부 요원으로서 신창희의 역할은 이룡양행(怡隆洋行)을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활동이었다.<sup>32)</sup>

일제가 1920년 7월 이룡양행 대표인 조지 쇼(George Lewis Shaw, 1880-1943, 蘇志英)를 체포하고, 이룡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1921년 10월 신창희는 가족들과 함께 상하이로 탈출했다.<sup>33)</sup> 상하이에서 신창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의(軍醫), 신한청년당 당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여운형, 김규식 등이 소련과 공산주의 그룹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자, 신창희는 김구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같은 노선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는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상의원(常議員)으로서 조선인 구제를 위한 의연금(義捐金) 모금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6년 2월, 신창희는 동몽고 지역에서 의료선교 사업을 추진하다 사망하였다.<sup>34)</sup>

신현창(申鉉彰, 1892-1951)은 1918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3·1 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4월, 그는 독립운동애국단장 신현구로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상하이로 잡입하였다. 신현창은 상하이에 해춘의원(海春醫院)을 개업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1921년 신현창은 임시정부 의정원 충청도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11

31) 홍정완·박형우, 「주현측(朱賢則)의 생애와 활동」.

32)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申昌熙)의 생애와 활동」, 41.

33) 조지 쇼의 한국독립운동 지원과 안동교통사무국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고. 한철호, 「조지 엘 쇼(George L. Shaw)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과 그 의의: 체포·석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8, (2006. 9); 한철호, 「1920년대 전반 조지 엘 쇼(George L. Shaw)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과 그 의의: 1920년 11월 석방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2012. 12); 김영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동교통사무국 설치와 운영: 대한청년단연합회와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 (2018. 5).

34)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申昌熙)의 생애와 활동」, 43-44.

월 25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대한적십자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적십자회 상의원(常議員)에 뽑혀 활동하였다. 1921년 신현창은 주현측과 함께 삼일의원을 개원했다. 1922년 주현측이 홍사단 활동과 선교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자, 신현창은 프랑스조계 송산로(嵩山路: Rue Baron Gros, 현 蒲北路) 54호에 해춘의원을 개원하였다. 홍사단 단원은 입단시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1922년 11월부터 1923년 3월까지 신현창의 해춘의원이 발급한 홍사단원의 건강검진서가 확인된다.<sup>35)</sup> 1922년 10월, 신현창은 김구·이유필·여운형·손정도·나창헌 등과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지원하였다. 1929년 귀국 후에도 서울, 전주, 철산 등에서 개업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이희경(李喜敬, 1890-1941)은 1915년 시카고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서 귀국했다가 1918년 12월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는 임시의정원 평안도 대표로 선출되어 활약하다가 1919년 7월 대한적십자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이 되었다. 임시정부 외무차장 겸 외무총장대리 등으로 활동하다가 독일, 미국 등지에 망명했다.<sup>36)</sup>

나창헌(羅昌憲, 1894-1936)은 3·1운동에 참가한 뒤, 구금되었다가 풀려나자마자 대동단에서 활동하다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상하이로 탈출했다. 1920년대 상하이에서 주로 한국노병회, 교민단의사회(僑民團議事會), 홍사단(단우번호 178) 등에서 활동했다. 1926년 9월, 나창헌은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폭발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프랑스 조계 백이로 존의리(Rue Eugene Bard, 白爾路 存義里, 현 自忠路) 2호, 세웅의원(世雄醫院)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7)</sup>

유진동(劉振東, 1908-?)은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상하이 동제대학 의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상하이에서 보룡의원(寶隆醫院)을 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38)</sup> 그의 활동이 1920년대 후반 동제대학 한인학우회에서 시작되고 있어, 실제로 상하이에서 개원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임시의정원 의원이나 광복군 군의처장 등의 활동은 1940년대로 추정된다.<sup>39)</sup>

35) 도산안창호선생 전집편찬위원회, 『島山安昌鎬全集』 제7권, (홍사단, 2000), 325-337.

36) 박운형·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 232.

37) 「上海 佛租界 工務局 文書(낭트소장사료): 45. 韓人 폭발물 투척에 관한 건」,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 임정편 V(국사편찬위원회, 1991).

38)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148.

## V. 맺음말

이 글은 3·1운동 전후 의사 출신들이 왜 상하이에 가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임시정부와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들의 독립운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일반적으로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직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금모금과 정보수집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시절 3·1운동에 참여했던 서영환이나 유상규 등과 같이 의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재필, 신영삼, 신건식, 임의탁, 이범교 등과 같이 독립운동에만 전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세브란스 출신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학교육이나 진료활동을 병행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의사 중 대부분은 세브란스 출신들이었는데, 세브란스인들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면, 종교, 학연, 지연, 인척관계 등 개인적인 연줄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연줄을 기반으로 하되, 각자의 독립운동 경험을 발판으로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된다. 광병규는 시베리아, 정영준은 만주, 주현측과 신창희는 평안도, 신현창은 충청도 등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셋째로 세브란스인들은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인적 유대 관계가 깊었다. 우선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홍사단 그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냈던 안창호는 김창세의 동서였다. 안창호가 위생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대한적십자회 창립에도 적극 관여했던 만큼 김창세는 안창호를 자문하는 위치에 있었다. 김창세 이외에도 주현측, 신현창 등 세브란스 출신들은 홍사단과 연결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 다음으로 여운형, 김규식, 김구 등이 주도한 신한청년단 그룹 역시 중요하다. 여운형은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는 등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데, 임시정부 초기에는 기독교 전도사로서 기독교계와 교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여운형은 대한인거류민단의 단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정영준은 대한인거류민단의 단원이자 시사책진회의 회원이었다. 김구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로 나섰던 계기는 신한청년당에 가입한 것이고, 그의 동서인 신창희 역시 신한청년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임시정부 성립 이후 김구는 의정원 의원과 경무국장 등을 지냈고, 신창희는

---

39) 박운형·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 의사들의 독립운동」, 232.



교통부 요원과 의정원 의원 등을 지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홍사단 그룹과 신한청년단 그룹이 대한적십자회 창설을 통해 서로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창호는 내무총장으로서 대한적십자회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홍사단 멤버인 안정근, 김순애, 김창세는 감사로, 신한청년단 그룹의 여운형은 이사를 맡았다. 또한 부설 간호부양성소에 홍사단 그룹의 김창세, 신한청년단 그룹의 정영준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1920년대 임시정부 요원과 임시의정원 의원 등에 참여한 의료인 중에서 세브란스 출신들이 가장 많았던 것은 3·1운동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세브란스 1회 졸업생 이래로 세브란스인들은 만주와 시베리아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임시정부에 그 힘을 보태고자 상하이에 합류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세브란스인들은 임시정부에 대한 참여 이외에도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하고자 했다. 세브란스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대한적십자회와 대한인거류민단 등에 소속되어 조직적으로 한인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을 개설하여 독립자금을 모으고 일반인들에 대한 접촉면을 늘려 나갔다. 더 나아가 김창세의 경우처럼, 프랑스 조계 공동국 위생과에 진출하여 활동함으로써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사례가 있었던 반면, 정영준, 곽병규 등과 같이 무장투쟁과 현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와 시베리아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선각자로서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핵심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주현측, 신창희, 곽병규, 정영준, 김창세, 신현창

논문 투고일: 2018. 4. 23.    심사 완료일: 2018. 5. 15.    게재 확정일: 2018. 6. 15.

## 참고문헌

### 1. 자료

『독립신문』

『신한민보』

『세브란스學籍簿』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도산안창호선생 전집편찬위원회, 『島山安昌鎬全集』 제7권, (홍사단, 2000)

「上海不逞鮮人狀況(1928. 7)」,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菊池義郎(블라디보스톡 總領事),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7), 不逞鮮人學生의 書面에 관한 건, 機密 제28호」(1919. 2. 21.),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 3: 高警 제13028호, 國外情報: 僞稱上海假政府 幹部의 黨派別」(1921. 5. 10.),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船津辰一郎(奉天總領事), 「機密公 第78號-機密受 第83號: 興京縣ニ於ケレ不逞鮮人情況ニ關スル件」(1924. 3. 20.),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岩村成允(鐵嶺領事), 「機密 第30號-機密受 第32號: 興京ニ於ケレ不逞鮮人情況ニ關スル件」(1924. 3. 15.), 『日本外務省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C. S. Kim, "A Brief Survey of the Public Health Activities in Shanghai", The China Medical Journal 42-7 (July 1928)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 임정편 V(국사편찬위원회, 1991)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70년사』(서울신문사, 1977)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1910-1945』(한올아카데미, 2001)

신규환·박윤재,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역사공간, 2015)

이영석 외, 『도시는 역사다』(서해문집, 2011)

- 김광재, 「1920년 전후 상해 한인사회의 위생의료 생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2015)
- 김광재, 「상해 국민대표대회 개최지 三一堂 위치고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 김영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동교통사무국 설치와 운영: 대한청년단연합회와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 (2018. 5)
- 노재훈, 「공중보건학의 선구자, 김창세 박사」, 『연세의사학』 1-1, (1997)
- 민병진,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고찰: 안창호·이광수·김창세의 상해 활동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9, (2016. 12)
- 박운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의사학』 15-2, (2006. 12)
- 박윤희·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 의사들의 독립운동」, 『의사학』 17-2, (2008. 12)
- 박형우, 「1910년대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6)
- 박형우, 「대의 김필순」, 『의사학』 7-2, (1998. 12)
-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申昌熙)의 생애와 활동」, 『연세의사학』 11-1, (2008. 6)
- 박형우·홍정완, 「박서양의 의료활동과 독립운동」, 『의사학』 15-2, (2006. 12)
- 반병률,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1-1, (2008. 6)
-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3·1운동 시기를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8-2, (2015. 12)
- 반병률, 「의사 이태준(1883-1921)의 독립운동과 몽골」,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6)
- 신규환, 「식민지 지식인의 초상: 김창세와 상하이 코스모폴리탄의 길」, 『문화와역사』 23, (2012. 5)
- 윤경로, 「김규식의 신앙과 학문 그리고 항일민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2011. 3)
-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6)
- 최규진·황상익·김수연, 「식민시대 지식인, 유상규(劉相奎)의 삶의 궤적」, 『의사학』 18-2, (2009. 12)
- 한철호, 「조지 엘 쇼(George L. Shaw)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과 그 의의: 체포·석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38, (2006. 9)
- 한철호, 「1920년대 전반기 조지 엘 쇼(George L. Shaw)의 한국독립운동 지원활동과 그 의의: 1920년 11월 석방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2012. 12)
- 홍정완·박형우, 「주현측(朱賢則)의 생애와 활동」, 『의사학』 17-1, (2008. 6)

Abstract

## Doctors who went to Shanghai an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hn Kyu-hwan\*

This paper examines why doctors, mainly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SUMC) graduates went to Shanghai and how they became deeply involved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K).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geopolitical location of Shanghai. While Manchuria was a military occupied territory by Japan, it could be invaded at any time. On the other hand, Shanghai could be politically free by forming a special space called semi-colonial state. On the contrary, Shanghai was free to form a special space called semi-colonial state. Especially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First World War, Woodrow Wilson's concept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ce of the minorities. In response to this, the PGRK was established in Shanghai, and independent activists gathered in the PGRK.

Second, the SUMC graduates are joining the PGRK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independence exercise and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any personal ties such as school relations and kinship. Gwak Byeong-gyu participated in the PGRK on behalf of independence movements such as Siberia, Jeong Yeong-jun in Manchuria, Ju Hyeon-cheuk and Shin Chang-hee in Pyeongan-do, and Shin Hyeon-chang in Chungcheong-do.

Thirdly, the SUMC graduates are also deeply in touch with key figures in the PGRK.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group of Heungsadan,

---

\*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focusing on Ahn Chang-ho. Ahn Chang-ho, who served 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GRK, was Kim Chang-se's the brother-in-law. In addition to Kim Chang-se, SUMC graduates, such as Ju Hyeon-cheuk and Shin Hyeon-chang, actively joined with the Young Korean Academy(Heungsadan) established by Ahn Chang Ho. Nex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hinhan Youth Party, led by Yeo Un-hyeong, Kim Gyu-sik and Kim Gu. He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PGRK, such as organizing the New Korean Youngman's Party(NKYP) and dispatching Kim Gyu-sik Kim to the Paris in February 1919. Kim Gu, Jeong Yeong-jun and Shin Chang Hee participated in the NKYP. Shin Chang-hee was Kim Gu's brother-in-law. In addition, the YKA Group and NKYP Group joined togethe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Red Cross Society.

Lastly, The SUMC graduates were continuing the tradi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Since the first graduation of SUMC, the SUMC graduates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center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have joined Shanghai on behalf of the independence movements in each region in order to add strength to the PRGK. As such, the SUMC graduates not onl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but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GK in Shanghai.

Key Words: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SUMC),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K), Shanghai, Ju Hyeon-cheuk, Shin Chang-hee, Guak Byeong-gyu, Jeong Yeong-jun, Kim Chang-se, Shin Hyeon-chang